

■ 괴운(機雲) 칼럼



을사년 새해에는 국민화합과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어느새 2024년 갑진년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갑진년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선정했듯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 전쟁과 주요국 지도자의 교체 등 혼돈의 한 해였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간 계속되고 있고,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 있는 반이스라엘 저항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한 이후 1년 반이 지나면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란 등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지난 12월 8일에는 1971년부터 53년간 시리아를 통치했던 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그밖에 남북한이 대치된 한반도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인제 폭발할지 모른다. 특히 작년 6월 19일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에 이어 10월에는 북한군 1만 2천여 명이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되어 그 여파도 크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와 밀접한 주요 국가의 지도자도 많이 교체되었다. 작년 5월 24일 친미파 라이칭더(賴清德:65)가 제16대 대만 총통으로, 9월 27일 이시바 시게무(石破茂:67)가 제102대 일본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달 1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78)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음은 국내적으로도 혼돈의 한 해였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무엇보다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야당의 계속된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는 등 정치적 여야 갈등으로 혼미한 한 해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관료 탄핵 발의와 감액 예산 단축 처리 등의 이유로 지난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여 그 여파가 크다. 국회에서 12월 7일에 이어, 12월 14일 2차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까지 이어져 우리 헌정사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현재 식물 대통령이 되어 정치사회 불안과 혼란이 극심한 해였다.

을사년 새해에도 세계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혼돈의 해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이 지속 중이다. 그리고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치 경계를 포함하여 세계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한미관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미-중 간 군사적 경쟁으로 남중국해-대만해협, 나아가 한반도에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AI를 활용한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전의 양상도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강국 미국이 트럼프를 앞세운 공화당이 8년 만에 백악관과 연방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하여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독특한 충동적, 감정적, 도발적이며 종종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발언 '예측 불가성'이 특징이며, 그의 세계관은 동맹체제 불신, 자유무역 반대, 독재자들에 대한 호감 등이다. 그는 재선 캠페인 구호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으며,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재할성화와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이다. 그는 그린베레 출신의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국가안보보좌관, 대중국 초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을 국무장관, 무역 고문에 피터 나바로 등 골수 친중파, 미국 우선주의자, 강력한 메타 우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80주년이다. 그리고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의날 행사와 10월 말 경주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한 해이다. 새해에는 여야정치의 화합으로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높여줄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근면과 창조 정신으로 생업에 매진하고, 각계각층의 화합과 희생정신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을사년 푸른 뱀의 새해에는 모든 잘못을 정부나 나에게 돌리지 말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 협력하는 미덕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안동 권문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아문명의 발전과 한중인문학의 역할

권중달(중양대 명예교수)

본 기사는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인문학 포럼에서 한국측 대표로 기조 강연한 연설문이다. 인문학으로 세계를 품미하고 있는 갈등과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면 사정상 몇 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주>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시대인 춘추시대(春秋)를 살았던 공자는 대부(大夫) 신분의 계씨(季氏)가 왕정(王庭)에서나 가능하였던 팔일부(八佾舞)를 추는 것을 보면서 기존 질서의 붕괴를 보고 참을 수 없어 하였습니.

새로운 문명을 이용하는데 발 빨랐던 사람이 부의 축적과 그것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기존 질서를 무너트리고 결국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킨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갈등은 앞뒤로 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70여 개의 주(周)의 봉건제 후국(封建諸侯國)은 전국시대의 무한 경쟁을 거치면서 7국(國)으로 되는 통합을 가져왔고 그 끝에는 진한(秦漢)의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무한 경쟁과 갈등의 전국(戰國) 시기를 통하여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推算)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 수준에서 본다면 엄청난 살상이며 이는 이전보다 발달한 철기 문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공자(孔子)의 이성주의(理性主義)적 초월의식(超越意識)이 나타났습니다. 공자는 결국 사람이 무엇인가에 깊은 성찰(省察)을 통하여 인문학(人文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발달과 그 결과물로서의 갈등을 목도한 현자(賢者)인 공자,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고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문명이 인간의 동물성에 의하여 이용되는 비극(悲劇)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교하고 이를 일깨워 주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를 인식한 이 현자들의 주장은 이들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갔고 그것이 인문학(人文學)의 탄생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국시대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정벌에 혈안이 되자 그들의 구미(口味)에 맞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는 말로 호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종횡가(縱橫家)로 불리는 소진(蘇秦, ?-기원전317)과 장의(張儀, ?-기원전309)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진은 이른바 합종책(合從策)으로 한 몸으로 6국의 재상을 겸직하였고, 장의는 진(秦)을 위하여 연형책(連衡策)으로 하루아침에 합종책을 뒤집어엮었지만, 다시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으니 모두 눈앞의 이익을 내세운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눈앞의 이익에 목매는 군왕은 인간의 가치보다 권력과 재부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역사를 이끌어 가

려고 하였지만, 이 현자(賢者)의 주장에 공감한 많은 인문학자도 끊임없이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권력자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설득하는 일로자임(自任)하였습니다. 전국시대를 살았던 맹자(孟子, 기원전372~기원전289)는 드디어 위(魏) 혜왕(惠王)과 제(齊) 선왕(宣王)을 만나서 인간의 동물적 욕구에 대하여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의(仁義)를 강조한 것은 바로 권력자에 대한 인문학자의 계도(啓導), 혹은 지도(指導)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문학자들의 끊임없는 주장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가는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 힘을 가진 권력자와의 결투를 통한 인문 사상의 확산을 기도(企圖)하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권력과 인문학의 결합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인문학은 적당한 선에서 권력자에게 봉사하고 그 대가로 권력자를 이용하여 인문 사상의 확산을 기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고조 유방의 등극 의식(儀式)에 유가(儒家) 학설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평민 출신 유방(劉邦, 기원전 256~기원전195)이 무력으로 통일하였지만, 통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였을 때 속손통(叔孫通)은 유가(儒家) 의례(儀禮)를 유방에게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도구로 제공했습니다.

권력과 인문학의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후에도 종종 나타났으며 물론 서양에서도 서기 313년에 기독교의 공인으로 권력과 인문학의 결합이라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인문학으로서의 유학(儒學)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유교(儒敎)가 되면서 국가 권력으로 인간의 도덕 질서를 강제(強制)하기에 이릅니다. 인문학이 국가 권력과 야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덕택에 인문학은 많은 사람에게 교육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권력을 지도하는 지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하부지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3. 갈라지는 인문학자

이에 따라서 인문학은 제왕(帝王)에게 봉사하는 인문학과 원래의 인문학 정신을 고고하게 지켜서 제왕의 위에서 제왕과 인류를 지도하는 원래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권력과 결부하여 인문학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인문학을 국가의 힘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과 인문학의 순수성을 지



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서는 많은 인문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주 소수의 인문학자는 산림(山林)에서 권력과 거리를 두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例)는 원대(元代)의 허형(許衡, 1209~1281)과 유인(劉因, 1249~1293)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의 행태는 도종의(陶宗儀)의 철경록(輟耕錄)에 극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중서좌승(中庶左丞)인 노제(魯齋) 허형(許衡)이 중통(中統) 원년(1260)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도성(都城)으로 가는 길에서 문정공(文靖公) 정수(靜修) 유인(劉因)을 만났더니, 유인이 ‘공(公)은 한번 부름을 받자 바로 일어나 가니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이처럼 빨리 오지 않으면 유가의 도가 실행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지원(至元) 20년(1283)에 유인(劉因)이 징빙(徵聘)되어 찬선대부(贊善大夫)가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사퇴하고 돌아갔다. 다시 불러서 집현학사(集賢學士)를 삼았는데 다시 병이 들었다고 칭하고 사퇴하였다. 어떤 이가 이에 관하여 물었더니 그는 ‘이처럼 하지 않으면 유학(儒學)의 도(道)가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지역종친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 제1회 정기총회가 12월 8일 저녁 7시에 마포구에 위치한 우가촌에서 권승규 명예회장과 권정수 전 산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수웅 대총회 부회장 겸 상임위원, 권오수 대총회 부회장 겸 전국 가스안전협회 회장, 권경호 서울청장년회 회장 겸 변호사, 권정찬 서울산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휘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마포종친회에서 서울지역종친회로 확대 변경한 후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이니만큼 권승규 명예회장은 띄운 협찬에 주었고, 권경택 전 사무국장은 자녀 혼사 상견례 행사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타월을 찬조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내빈들과 고문 및 회원들은 종친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심시일만 현금으로 협찬해 주었다.

권영복 초대 회장은 대한(大寒) 날씨답게 매서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한 해 동안 매월 유적지 탐방 등



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조식을 다지며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 앞으로도 서로 챙겨주는 종친회, 더욱 발전하는 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지역종친회의 2025년 1월 월례회는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여 새해 을사년을 맞이하고자 온양온천을 다녀올 예정이다. 권영복 회장

<2024년 12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1.26. ~ 12.29. 총 납부자 35명/지사 3곳 총 2,680,000원

Table with 5 columns: Name, Amount, Name, Amount, Name, Amount.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for the December 2024 fund-raising event.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서울지역종친회 2025년 1월 월례회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2025년)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여 새해를 맞이하고자 온양온천을 다녀올까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12시
◆장소: 아산시 온양온천
◆교통: 전철1호선 신창행 온양온천역
◆연락처: 회장 권영복 010-2456-6865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총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 345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5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1월 19일(일) 10시(시간엄수)
◆집합장소: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2번출구
◆산행지: 인릉산 및 둘레길
◆준비물: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회장 권정찬: 010-5392-6222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총무 권혁구: 010-2240-4242

2025년 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